

# 수질사고에 노출된 양문공단 폐수처리시설

## 1단계 완전정화 못해... 1·2차 침전조 보완해야

포천 양문지방산업단지(이하 양문공단) 내 폐수처리시설이 염색 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 채 영평천에 방류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하루 7천여의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양문공단의 폐수처리시설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정식 운영 되고 있으나 설계상 미비와 제한 용량을 넘어선 폐수 배출로 인해 100% 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문공단의 입주업체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폐수처리의 핵심인 1차 처리시설을 가압부상조(배수중의 부유물질을 물의 표면으로 떠오르도록 하여 분리 제거하는 장치)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원폐수 성상에 따라 부하변동이 심해 폐수처리가 연중 불안정하다는 것.

효율을 발생시킬 시 후속공정 약 영향으로 수질사고의 위험이 많으며 이로 인해 통상 톤당 500~600원인 유지관리비가 2배 가까이 올라 1천원대로 상승해 입주업체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지난 13일 경기도와 포천시, 김리단인 한국건설기술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사무실에서 폐수 처리 시설 증설에 따른 2단계 공사 설계보고회를 갖고, 현재의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전오존산화조 ▶ 냉각탑 ▶ SBR 반응조 ▶ 사여과기, 디스크필터 ▶ 후오존산화조 ▶ 활성탄여과기 ▶ 방류의 공정을 가압부상조 다음에 1차침전조를, SBR 반응조 다음에 2차침전조 공정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 유출량이 많이 줄어 현재는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수질검사를 해도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2단계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최종 마무리가 되면 시

에서 직접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조성된 양문공단은 현재 총3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하루 1만여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강도사범등 7대범죄 전년대비 13% 감소 효과

의정부서, 주민이 원하는 경찰상 평가보고회서 밝혀

의정부경찰서(서장 김덕기)는 지난 20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각 과장 및 지구대장등 직원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3월중 평가분석 보고회를 개최하고 10가지 중점과제를 차안목표로 선정했다.

이날 보고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방법활동과 교통사고로부터 한생명 더 살리기 운동 등 주민의 편안한 삶과 직접 연관되는 생활치안등 10가지 중점과제를 지난 2월 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

다.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해 3월 대비 발생건수가 8.9% 감소했고 범죄유발심리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검문검색 등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강도도사범등 7대범죄가 13% 감소되었다.

또 국민편의 최우선 수사제도를 적극 추진한 결과 조사사무원 보유건수를 전월대비 1인당 50건에서 40건대로 대폭 감소시키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신뢰받는 경찰의 위상을 제고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중요범인검거와 친절한 경찰상 구현에 공로가 많은 형사과 박종현 경장과 안병대 순경 등 유공경찰관 30여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 서장은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로 더욱 친절하고 깨끗하며 공정한 법집행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 봄을 맞아 복지시설도 새단장



봄을 맞아 안팎으로 대청소를 하는 등 포천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이 지난 14일 정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사모는 올해 들어 벌써 세 차례나 이곳을 찾아 욕실청소, 꽃꽂이 강습, 화단 가꾸기 등을 실시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포천지역 화재발생 증가

85건 재산피해 6억8천743만원

포천소방서(서장 이대열)는 지난 1/4분기 동안에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85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6억8천743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화재는 10건(13%)이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도 1억5천959만 여원(30%)이 증가하였고 인명피해 또한 사망 2명과 부상 1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분기동안 발생한 화재 가운데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28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으며 불타가 11건(13%), 담배가 9건(11%)을 차지했다.

화재 유형별로는 공장·작업장 화재가 36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20건(24%), 근생, 동식물 관련시설이 각 5건(5%)으로 나타

났다. 구역별로는 소홀소방파출소가 39건(46%)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고 포천소방파출소 22건(26%), 이동소방파출소 13건(15%), 영북소방파출소 11건(13%)으로 집계됐으며, 소홀소방파출소가 화재발생이 많은 것은 소홀음, 가산면, 내촌면으로 소규모공장 및 작업장의 분포가 타 파출소보다 많아 화재 발생건수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화재 및 산발발생이 많을 것을 우려하여 화재 및 산발예방캠페인의 실시로 시민 불조심 의식 확산에 주력하고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산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불철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병길 기자 jpk61@hanmir.com

## 군 훈련으로 또 산불 발생

14일 영평사격장에서 미군 폭파훈련 중 발화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산불이 계속 발생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28분경 영평면 영평사격장(로드리제스)에서 미군의 폭파 훈련 중 산불이 발생이 산림 15ha가 소실됐다.

이날 산불이 발생하자 공무원과 소방대 등 100여명과 헬기 7대 등

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 다음날인 오전7시 30분경에 겨우 불길을 잡았다.

한편 지난 8일 이동면 노곡리 8사단 수색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연막탄 훈련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미군의 훈련으로 또 산불이 발생하자 건기에는 군부대 훈련을 자제하는 등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사건 II 사고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불법기부

양주경찰서는 14일 특정후보 지지발언과 함께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양주·동두천 지구당 산악회 간부 전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인 지난 1월6일 관광버스 안에서 특정 후보 지지발언과 함께 산악회원 30명에게 건강벨트 1개씩을 나눠준 혐의다.

전씨는 또 지난달 3일에도 관광버스 안에서 지지발언과 함께 산악회원 40명에게 건강벨트를 나눠주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70명의 산악회원에게 175만원 상당의 건강벨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위반 50대 구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정화하지 않은 채 매립한 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최모(55)씨가 16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의정부지검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1만 2천㎡의 잡종지에 서울 강북정수장과 포천시 인근 석재공장 등에서 발생한 상수원 오니와 석분 5만4천여

t을 일반토사와 혼합하지 않고 무단 매립한 혐의다.

### 주택임차대금 불법 대출해 채무변조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13일 가짜 부동산 전세계약을 작성,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윤모(45,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 4월 동두천시 생연동 모 은행 지점에서 고모(44)씨 명의의 작성된 가짜 전세계약을 제출, 주택임차자금 1천200여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 유사취발유 제조로 부당이익 챙겨

양주경찰서는 19일 유사취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의 H화학 공장장 최모(41)씨를 석유사업법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양주시 남면 H화학 공장에서 블루엔과 솔벤트를 혼합해 유사 석유제품 2천500여 l를 제조한 뒤 고객들에게 판매, 15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 영북 운천터미널 서비스 제고해야

이용객들 불만 높아, 사측 '운영안된다' 난색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첫 관문의 하나인 포천시 영북면 운천터미널의 시설과 서비스가 낙후돼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운천터미널은 5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터미널로 지난 74년 건물 내 대합실을 만드는 등 단 한차례 확장을 했을 뿐이며 이제야 하수도가 조성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지역 특성상 관광객과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데 비해 화장실과 발매창구 등의 시설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시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어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자동현금출기(ATM) 설치, 신용카드 발

권, 인터넷 예매 등의 서비스는 더욱 요원한 일이다.

운천터미널의 운영을 맡고 있는 관계자는 "국가나 시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30년 동안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손님을 시내버스에 다 뺏기고 사장이 직접 창구에서 표를 팔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 터미널로 자부심을 갖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표 팔아봐야 타산이 안 맞아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포천터미널의 경우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운천터미널의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특유의 손맛으로 최고음식을 자랑하는**

# '마이산 전주식당'

“마이산 전주식당이 양질의 음식을 선보이고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갈한 맛과 담백한 맛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맛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 생태매운탕 30,000원  
■ 대구지리 40,000원(타) 30,000원(소)  
■ 아구찜·탕 40,000원(타) 30,000원(소)  
■ 전주정식 5,000원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362-3  
예약문의 : 031)543-2825/대표 : 전 금 선

특유의 손맛으로 최고음식을 자랑하는

# '마이산 전주식당'

“마이산 전주식당이 양질의 음식을 선보이고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갈한 맛과 담백한 맛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맛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362-3  
예약문의 : 031)543-2825/대표 : 전 금 선